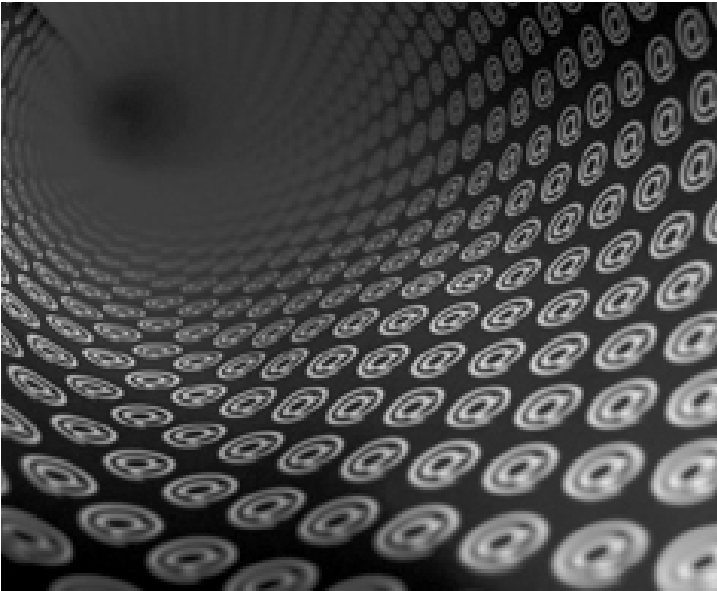


# 위키리크스와 전세계적 정보전

| 앤드류 가빈 마셜 | 유래현 '지금여기' 번역위원 옮김 |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져나와 이전에는 가려져 있던 지배적 정보까지 대중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보를 잘 취사선택하여 '개인의 자유'와 '전체의 조화'를 동시에 이룰 격 높은 정보해석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글도 그런 참고 자료의 하나로 삼습니다(편집자 주).



(지난 호에 이어서 2부)

## 위키리크스와 미디어

대안 미디어의 입장에서 위키리크스를 ‘우리가 모르는 것에 대해선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고 조소하기보다는 위키리크스의 유명세와 그 여세를 활용하여 문서화와 분석을 하게 되면 대안 미디어의 주장과 신념에 힘을 실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 세계의 관심 있어 하는 새로운 독자들이 위키리크스의 폭로를 더 폭넓은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위키리크스의 내용들은 단지 세계에 존재하는 ‘환상들’을 주로 추종하는 사람들에게나 ‘천기누설’일 뿐이다. 즉, 우리가 국내외로 ‘자유’를 장려하는 민주사회에 살고 있다는 환상 말이다. 하지만 그 ‘천기누설’은 미국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식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들과 사람들에게도 도전적이다. 사실 사람들이 이런 새로운 것들을 읽고 찾아내는 것에 흥미가 생겼다는 것은 놀라운 변화이다. 어쩌면 기업형 미디어들이 이런 정보 유포에 깊이 연루되어 있는(이 자체도 대안 미디어로서는 사실 무척 의혹이 생기는 부분이다) 이유는 바로 : 메시지들의 해석을 통제하기 위해서 일지도 모른다. 사실 분석을 통해 그런 해석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대안미디어와 지성들, 그리고 그 밖의 생각 있는 사람들의 몫이다. 위키리크스 폭로는 사실 기업형 미디어보다는 우리에게 사실정보를 더 제공해주고 우리의 해석을 뒷받침해 준다.

우리는 위키리크스의 폭로가 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하나의 ‘천기누설’이었는지를 자문해 보아야 한다. 글썄, 미디어가 그 자체로 정보에 대한 접근, 유포, 해석 경로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놀랄

일이긴 하다. 그것들이 ‘천기누설’인 이유는 사람들이 날조된 통념에 의해 세뇌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안 미디어에서는 그것에 대해 이미 수년간 말해왔기 때문에 전혀 ‘천기누설’이 아니다. 하지만 ‘천기누설’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실의 확인과 입증, 그리고 해석을 위한 더 많은 정보를 거기서 얻을 수 있다. 이것이 큰 기회다. 폭로가 우리의 관점을 지지하고 더 많은 정보를 주기 때문에 이런 개념 위에서 위키리크스가 비판적 분석에 어떻게 보탬이 될지 계산해 볼 수 있다. 새롭게 관심을 가지게 되고 정보를 찾아보게 된 사람들, 또는 기존의 인식이 도전받게 된 사람들에게 그 정보를 더 넓은 맥락 위에 놓아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대안 언론과 비판적 개혁가들 뿐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 대안 미디어와 비판적 관점들이 주류 미디어들보다 더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위키리크스라는 ‘천기누설’ 덕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대안 미디어와 개념들에 눈을 돌리게 되고 결국엔 주류 미디어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이 맞다는 것이 확인될 것이다.

글로벌 기업과 주류 미디어들이 자신의 이익에 맞도록 폭로들을 조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당히 강력한 선전 공세를 견디고 있다. 그러므로 대안 미디어와 언론인들은 위키리크스를 잘 이용해야 한다.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우리의 명분을 훼손시키고 힘을 약화시킬 것이다. 주류 미디어도 그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도 그래야 한다. 위키리크스에는 주류 미디어가 조직화된 선전 조작임을 폭로할 수 있는 더 큰 기회가 내재되어 있다. 주류 미디어는 그 ‘천기누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함으로써 오히려 자신들이 세계의 분석과 주요 이슈들에 대해 심각할 정도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주류 미디어들이 현재로서는 폭로로 인해 상승

세를 타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기술 혁명’ 시대에 살고 있으며 아직은 – 어쨌든 현재까지는 – 인터넷 자유가 있으므로 그 조류는 급격히 바뀔 것이다.

부자는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자신을 목매달 밧줄이라도 판다는 말이 있다. 아마 주류 미디어도 똑같이 했을 것이다. 주류 미디어만큼이나 재빨리 그렇게 많은 내용을 지구상에 퍼트릴 능력이 있는 조직은 없을 것이다. 만약 폭로가 대안 미디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대체 언론을 읽고 있던 몇몇에게만 정보가 전달되었을 것이다. 그런 경우 그것은 전혀 대단한 ‘천기누설’도 아니고 미약한 효과만 있었을 것이다. 주류 미디어는 위키리크스 데이터를 전 세계적으로 퍼트리면서(그 조작되고 선동적인 해석은 미루고서라도) 폭로에 담긴 정보의 힘과 중요성을 약화시켰다. 대안-비판적 언론들은 더 많은 새로운 독자들에게 다가감으로써 이 새로운 독자들이 ‘통제된’ 정보 세계로부터 ‘접근 가능한’ 정보 세계로 옮겨갈 수 있게 도울 수 있다. 이것은 아마도 대안-비판적 언론들에게 가장 큰 기회들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위키리크스는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는 사건이다. 단순히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정보에 눈뜬다는 의미 뿐만 아니라 세계의 권력 조직들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그렇다. 외교 대사들이 사임하고, 외교관들이 거짓말쟁이이며, 한낱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이 밝혀지고, 서구 제국 동맹 내 정치적 균열이 생기고, 전 세계 엘리트들의 명성과 커리어를 위협에 빠뜨리면서 위키리크스는 제국주의 지배의 실효성에 광범위한 부정적 영향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것은 그 자체로 훌륭하고 가치 있는 목표이다. 이것이 이미 현실이 되었다는 것은 위키리크스가 얼마나 많은 변화를 낳을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사람들은 그들의 지도

자들을 ‘대외 홍보’라는 렌즈에 의해 걸러지지 않은 상태 그대로 보기 시작했다. 주류 미디어를 통하면 선전조작에 의해 취사선택되기 때문에 이 정보를 더 큰 맥락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안 미디어와 비평적 지성들의 중요한 의무이다. 이것이 제국의 영향력을 서서히 침식해 나갈 것이다.

여러 나라와 경찰 조직들이 줄리안 어산지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하려고 하거나 그의 암살을 요구하는 것에서(캐나다의 한 고문이 TV 상에서 총리에게 제안했듯) 알 수 있듯, 이 조직과 개인들은 민주주의, 투명성, 정보의 자유에 대한 증오를 드러내고 있다. 그들의 반응은 그들의 ‘지배’권을 약화시키는 데 이용할 수 있다. 만약 경찰 기관들이 보호와 봉사를 위한 기관이라면, 왜 진실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파괴시키려고 하느냐는 것이다. 사실 이런 현상은 국가의 본질을, 특히 국가 공동체가 군사 병영화되고 권리와 자유가 해체되는 현대적 현상을 연구한 사람들에게는 놀랄만한 일도 아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 세계에서 목도되고 있는 일이고 사람들은 그것을 경계하고 있다. 이것은 새로운 현상이다.

이것은 외교 정책을 비판하고(‘제국주의 전략: Imperial Strategy’을 읽어볼 것) 지구의 권력 조직들의 실체를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듣고 배우고 조사하려고 하고 있다. 위키리크스는 혼란이 아니라 선물로 보아야 한다. 우리는 위키리크스 내용 중에서 대안 미디어의 관점을 반영하지 않는 부분(이란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정책’ 자체를 비롯하여 복잡한 사회적 상호작용 및 앞으로 실행될 ‘정책’의 근간이 되는 아이디어에 대한 대안 미디어식 이해를 좀 더 알리는데 위키리크스를 이용해야 한다. 외교 전문 자체에 관련해서 우리는

‘제국의 하수인’이라는 외교관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들을 ‘허위선전’으로 격하하기 보다는 제국들의 기관에 대항하는 용도로 활용해야 한다. 그래서 제국이 어떤 것인지 폭로해야 한다. 위키리크스는 제국의 정책 뒤에 있는 수사(修辭)를 벗겨버림으로써 외교관들이 ‘지식을 가진 관찰자’가 아닌 ‘권력의 하수인’임을 드러낸다. 세계의 국가, 조직, 기관들의 반응은 이런 접근에 힘을 실어주는데, 정치적 수사(修辭)에도 불구하고 정치 지도자들이 ‘민주주의’, ‘정보의 자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지독한 혐오를 볼 수 있는 것이다. 많은 권력 기관들이 이런 방식에 의해 더 폭로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분석에 더해서 ‘교육’이 아니라 ‘교의주입’ 및 새로운 ‘권력의 하수인’ 양성에 몰두하고 있는 대학들의 역할을 짚어보아야겠다. 예를 들어, 콜롬비아 대학은 세계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대학들 중 하나이다. 그 안에서 외교관을 포함한 정치 엘리트 여럿과 중요한 그룹들이 탄생했다. 위키리크스가 폭로되자, 콜롬비아대는 경고하기를 학생들이 그 문서 중 어떤 것이라도 다운받는다면 미래의 직업을 잃을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이며 정부가 250만 명 이상의 고용자들에게 컴퓨터나 다른 장치들을 통해 위키리크스의 정치 전문가들을 읽는 것을 금지시켰다고 덧붙였다. 장차 국가기관에서 일할 인재들인 이 대학의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에게 대학이 이메일을 보낸 것이다.[1] 대체 그들은 대학이 무엇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교육’ 아니면 다른 것? 어떻게 학생들을 자신들의 이익을 고려해서 가르칠 생각을 하는 것일까? 특히 미래의 외교관이 될 학생들을 말이다. 위키리크스에 대한 이 대학들의 반응은 우리 사회에서 대학들의 역할과, 특히 제국 기관들의 미래 ‘관리자들’을 만들어내는 대학의 기능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게 한다.

## 하나의 기회로서의 위키리크스

만약 위키리크스가 심리조작전술이라면, 아마 지금까지의 것들 중 가장 명칭하거나 가장 지능적인 것 중 하나일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권력 시스템과 조직들이 유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폭로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다. 대안 미디어와 비판적 분석가들에게 궁금한 것이 있다면 그들이 이 정보와 기회를 이용해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줄리안 어산지는 최근에 타임지와 인터뷰를 가졌다. 부적절하게 정보를 주입받은 타임지 편집자에게 어산지는 입을 다물고 있는 조직들이 드러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그들의 행동이 대중에게 밝혀진다면 그들은 다음 2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하나는 그들의 노력과 그것을 공표하는 것에 걸맞은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쪽으로 스스로를 개혁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안으로부터 걸어 잠그고 고립되어 결과적으로 무능한 조직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나는 이것이 매우 타당한 결론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조직은 투명하고 개방적이고 효율적이거나 폐쇄적이고 응모가 난무하고 비효율적인 것 중 하나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2]

어산지는 더 나아가 위키리크스의 영향력과 그것에 대한 반응에 대한 그의 생각을 밝혔는데 중국에 대해 말하기를:

중국인들은 자유 언론을 끔찍하게 두려워하는 것 같다. 혹자는 이런 현상을 두고 그 나라에서 뭔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나는 사실 매우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언론이 개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과 권력 구조가 경제 구조와는 달리 여전히 본질적으로는 정치적이라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도와 글쓰기는 변화를 이룰 수 있는 힘이 있으며 이 점이 바로 중국 정권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이유이다. 반면 미국이나 다른 서구 국가들은 광범위한 정도로 사회의 기본 요소들이 계약적 의무에 의해 고도로 재정화되어 있어서 정치변화가 경제적 변화를 만들어 낼 것 같지 않다. 다른 말로 하자면 정치 변화가 (사회)변화를 낳지 못한다는 것이다.[3]

인터뷰에서, 어산지는 인터넷과 사회의 미디어 주제에 대해서도 말하기를:

소셜 미디어의 부상은 정말 흥미롭다. 우리가 처음 말했던 것처럼 (2006년), 우리는 블로거들과 위키피디아 내용을 작성했던 사람들이 분석 작업을 해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우리가 질 좋고 중요한 정보를 많이 가진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우리의 문서들을 이용한 엄청난 양의 작업들 많은 분석 작업들이 우리와 함께 일한 직업 언론인들, 그리고 직업적인 인권운동가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더 넓은 사회 내에서 이루어진 작업이 아니다. 하지만 작업이 한 번 시작되자, 이야기였던 것이 뉴스 기사가 되고 사회가 참여하더니 그것을 더 깊게 파고 들어가 더 많은 시각을 제공했다. 말하자면 소셜 네트워크는 우리가 한 것을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다. 또 우리 정보의 공급자이기



도 하다.[4]

연구자들, 미디어, 그리고 평론가들로서 우리의 관점과 신념들은 변화와 진보에 열려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이런 일이 전에는 일어난 적이 없다는 것만으로 그것이 지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 우리는 지금 ‘기술 혁명’의 시기에 살고 있고 인터넷은 세계적 규모로 경제, 정치 그리고 사회 자체를 바꾸고 있다. 여기에 ‘범세계적 정치적 각성’의 진행과 정보 제공에 대한 진정한 희망이 있는 것이며, 그것이 더 속도를 내어 자리잡기를 기대하는 이유이다. 우리 세계의 진정한 변화는 이미 확립된 또는 새롭게 창조된 권력 기관들에서 올 것 같지 않다. 그 기관들엔 현재도 모든 이슈들, 특히 세계적 중요성을 가진 이슈들이 전달되고 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세계적 권력 기관이 아니라, 기술혁명에 의해 권력 독점이 와해되고 사람들 간에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세계적 ‘공동체’에서만 가능하다. 변화는 세계인 누구에게나 이해되어야 하고 공동체에 의해 주도되어야 한다.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사회 변혁의 시기에 있다. 질문은 이것이다. 그것에 대해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을까? 또는 그냥 앉아서 그것이 잘못 이끌어지는 것을 쳐다보면서, 흔들려 몰락하는 것을 비판해야 할까? 마틴 루터 킹이 1967년 연설에서 언급했듯, 베트남 전 이후로 미국은 세계 혁명의 잘못된 쪽에서 있는 것 같다. 이제 그 슬픈 현실을 바로 잡을 기회가 왔다. 국가적 규모를 넘어선 세계적 규모로 말이다.

이 세계의 권력과 지배자들이 가지는 모든 수단과 방법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동에는 반드시 그에 대응하는 반응이 존재한다. 세계의 독립적인 관찰자들이 알아챈 것처럼 상황이 점차 나빠지면서, 생명은

이 퇴행에 대항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들을 만들어 내었다. ‘세계화’가 여러 세계 엘리트, 여러 세계 기관들과 지구적 권력의 이데올로기의 출현을 가능하게 했듯, 이 과정은 ‘저항의 세계화’를 가능하게 해 왔다. 그래서 엘리트들이 세계적 권력 구조를 통합하고 확장하는 작업을 함으로써 그들은 의도치 않게 그 권력 구조들에 상응하는 세계적 저항을 통합하고 확장시키고 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거대한 역설이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사실에 대한 관찰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희망적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희망은 평가절하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세계를 보는 시각 속에 갖추려 애쓰던 것이다. 세계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일들을 연구해보면 희망은 찾아보기 힘든데, 이루어진 것이라곤 얼마나 적은지 알게 된다. 하지만 행동주의와 변화는 희망을 필요로 한다. 이런 것이 뚜렷이 드러난 것이 오바마의 선거 운동이었는데 ‘희망’과 ‘변화’라는 수사로 가득 차 있었고 그것이야말로 사람들이 정당하게 원하고 필요로 하던 것이었다. 하지만 오바마의 ‘희망’과 ‘변화’는 월스트리트 상표이자 특허였고, 허위선전 예술의 위대한 실행이었으며, ‘희망’과 ‘변화’의 진짜 개념에 끔찍한 일격을 가한 것이었다. 오바마의 선거운동이 홍보 산업상(賞)을 받은 데에는 이유가 있다.[5]

희망은 필요하다. 하지만 오바마의 예에서처럼 잘못된 곳에 희망이 놓여서는 안 된다. 그 희망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닌 정직한 분석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상황이 점차 악화되어 가는 동안, 대안 미디어는 그들이 의도적으로 무시해오던 이른바 ‘범세계적 정치적 각성’과 국제사회를 재구성하는 인터넷의 역할이라는 긍정적인 지정학적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이슈들이 알려져 있기는 하나 완전히 이해

되거나 더 넓은 맥락상에서 설명되지는 않고 있다. 사실 이것은 희망적인 발전이다. 만약 이것을 기회로 받아들인다면 위키리크스가 이 개념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다. 희망이 없는 비평은 쇠귀에 경 읽기이다. 아무도 희망 없는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래서 세계에서 잘못된 것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면, 마찬가지로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것에 대해 알아보는 것 역시 그렇다. 이것이 메시지를 퍼뜨리고 지지자들을 구축해준다. 인터넷은 그 매체로써 이 메시지를 퍼뜨리게 도우며, 결국에는 중요한 미디어 이론가인 마셜 맥루한이 말했듯 매체가 메시지이다.

### **‘폭로’와 ‘증명들’에 덧붙임 : 대안 미디어의 행동을 촉구함**

그래서 어떤 ‘폭로들’이 대안 미디어가 활용할 수 있는 ‘증거’들일까? 글썄, 한 가지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강력한 정치, 경제 관계자로서의 왕가의 역할이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단지 사우디아라비아처럼 군주들이 공식적인 지배자로 남아있는 나라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며, 보다 좁혀보자면 서유럽과 특히 영국의 군주들에 대해서이다. 빌더버그 그룹이나 삼변 위원회 같은 기관들을 연구해본 사람에게 유럽 왕가들이 국제 관계에 관여하는 것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빌더버그 그룹이나 삼변 위원회 같은 것은 들어본 적도 없는), 이 군주들이 정치 행위자와는 상반되는 상징적 존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순진한 생각이다. 군주는 사실 항상 정치 행위자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순진성은 더 넓은 범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도전받고 있다. 현대 사회의 군주들의 관련성에 대해 논하려고 한 적이 있었는데 많은 이들이 ‘여왕에게는 실질적인 권

*진정한 변화는 세계적 권력 기관이 아니라, 기술혁명에 의해 권력 독점이  
와해되고 사람들 간에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세계적 '공동체'에서만 가능하다.  
변화는 세계인 누구에게나 이해되어야 하고 공동체에 의해 주도되어야 한다.*

력이 없고 여왕은 상징적 존재'일 뿐이라며 그 같은 문제제기를 의아하게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위키리크스는 그런 생각이 틀렸음을 폭로했다. 이 이슈는 더 확장되어야만 한다.

에킨대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둘째 아들인 앤드류 왕세자는 위키리크스 전문에서 자주 폭로의 대상이 되었다. 키르기스스탄의 미국 대사는 그녀가 참석했던 회의와 관련된 전문을 작성했는데, 그 회의에는 다수의 영국과 캐나다 기업인들, 그리고 중동과 중앙아시아의 영국 특별무역대표인 앤드류 왕자가 참석했었다. 회의에서 앤드류 왕세자는 폭언하기를, '그 (빌어먹을) 언론인들은 어디에나 코를 처박고 냄새를 맡고 다니고, 명칭한 영국 반부패 조사원들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알-야마마 협상을 거의 무효가 될 지경으로 만들었다'며 독설을 퍼부었는데 특별히 사우디 치안군에 수년간에 걸쳐 관리팀과 훈련을 제공하기로 하고 영국방위산업체 BAE 사가 사우디 왕가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일에 대한 조사를 언급했다. 그가 미디어 - 특히 가디언지 - 가 해외에서의 비즈니스를 힘들게 만든다며 호통 쳤을 때 당시 자리했던 비즈니스맨들이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실제로 박수까지 쳤다고 미국 대사는 적었다.[6] 이것만 보아도 엘리트들이 민주와 자유의 대표자들을 얼마나 경멸하는지 알 수 있다.

같은 회의에서, 앤드류 왕세자는 또 다른 깜짝 놀랄만한 주장을 했는데 현재까지 미디어에서는 잘 다뤄지지 않고 있다. 그는 미국 대사

에게 말하기를 영국, 서유럽(그리고 넓게는 당신들 미국인들도)이 이제 ‘큰 게임’의 와중으로 돌아와 있다며 이번에는 이겨야지!라고 했다는 것이다. 더해서, 앤드류 왕세자 - 요크의 공작 - 은 그 지역<sup>1</sup>에서 러시아의 재부상이 매우 걱정스럽고, 그 지역에서 중국의 정치, 경제적 확대는 피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의 위협이라고 말했다. 회의를 빠져나오며 한 영국 기업가는 미국 대사에게, ‘영국 국민은 정말 대단한 대표자를 두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왕족들이 이보다 더 자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했다.[7] 글썄, 당신도 알다시피 부유한 왕자가 부자 기업인들을 대동하고 전 세계를 다니며 외국에서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이런 행위를 두고 중앙아시아를 지배하려는 ‘큰 게임판’에서 영국과 러시아가 제국주의적 경쟁을 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고도 우리가 이 나라들을 ‘민주주의 국가들’이고 ‘자유’의 수출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왕족의 매우 전형적인 행동 방식이다. 하지만 남아공의 전(前) 하원의원이자 반부패 운동가인 앤드류 파인스타인은 설명한다. ‘영국 왕실은 영국의 무기 판매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설사 부정부패가 의심되는 경우에도요. 왕실은 남아공 공군이 원하지도 않는데 BAE 사의 호크 제트기를 사도록 설득하는 것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 제트기들은 남아공 공군이 원하는 비행기의 2.5배나 되는 가격이거든요. 당시 아프리카 국민회의(ANC)의 하원의원으로서 전 11만 6천 파운드가 뇌물로서 핵심 인물들과 ANC에 제공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왕실의 태도를 보면 BAE 사가 부패 행위에도 불구하고 영국에서 어떠한 정의의 심판도 받지 않을 것을 알 수 있다.[8]

---

1 중동과 중앙아시아 지역을 가리킨다.

영국의 왕족들은 또한 아랍의 전제군주들과 매우 가까운 사이이다. 그것은 아랍 전제왕정을 만들어 내고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권력을 부여한 것이 영(英)제국(그리고 그 배후의 ‘왕관’)인 것을 고려해 보면 의 미심장한 일이다. 앤드류 왕자는 요르단 왕과 아랍에미리트의 군 관계자들과 사냥 여행을 떠났었다.[9] 게다가 찰스 왕세자는 전문에서 드러난 바에 의하면 사우디아라비아와 관련해서 전략적 외교 인사로 평가되고 있다. 영국 미디어의 헤드라인은 찰스 왕세자가 엘리자베스 여왕만큼 존경받지 못하고 있다는 ‘폭로’를 실었다. 하지만 실제 사실은 글 속에서 왕가 관련 가십 기사 속에 묻혀버렸는데, 전문이 드러난 바에 의하면 찰스 왕세자와 그 비(妃)는, 사우디아라비아가 5명의 영국인들을 2001년 12월에서 2003년 10월에 걸쳐 구금, 고문한 것과 2004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영국 항공우주 작전에 대한 영국의 공식적 허위 조사라는 곤란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도왔다. 한 미국 외교 전문이 설명한 대로, 영국 왕족들은 사우드 집안과 윈저 집안이 그들의 왕가의 공유성을 구축함으로써 영-사우디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을 도왔다. 달리 말하자면, 그들은 모두 투표로 선출되지 않고 이해 불가능한 엘리트 왕정 권력을 대표하고 따라서 그들은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려 할 것이다. 그들이 어떻게 민주적일 수가 있을까. 사우디 왕가는 또 찰스 왕세자를 위해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영국 기업인의 도움으로 거창한 파티를 열어주었다.[10]

하지만 ‘천기누설’이 사우디아라비아와 그 군주를 서구의 동맹국에 그다지 협조적이지 않은 것으로 그려놓은 것처럼, 영국 왕족들은 사우디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또 다시 타결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간단히 말해, 사우디와 그 군주는 최근 들어 대외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영국 군주는 자신의 일 처리에만도 너무 바쁘거

나 또는 너무 시선을 받고 있어서 또 다른 도도한 방문을 하는 식으로 ‘우아하게’ 일을 처리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사우디에 대해 나쁜 것을 홍보하려면 내가 어떤 말을 하면 될까? 아주 간단하다. 영국 군주의 좋은 친구인 사우디 왕족들은, 어찌된 일인지 전 세계 수니파 테러리스트들(알카에다를 포함하는)의 주요 재정지원자라는 것이다.

알-카에다나 테러와의 전쟁을 비판적으로 분석했던 사람들에게는 전혀 놀랄 일이 아니지만, 실제로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충격적 폭로이다. 서구의 정부들과 미디어 선전 장치들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란, 그리고 최근엔 파키스탄과 예멘이 테러리스트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수년간 비난해 왔는데, 위키리크스 전문가들은 테러지원국이 사실 주요 서구 동맹국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뿐만 아니라 다른 걸프만 아랍국들과 그 전제군주들이라는 역사적, 현재적 현실을 입증해 보여준다. 힐러리 클린턴에 의해 사인된 메모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아프간의 탈레반이나 라쉬카르-에-타이바, 알카에다 같은 이슬람 무장 세력의 가장 큰 재정지원국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더해서, 다른 아랍 3개국, 카타르,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연방이 주요 테러리스트 재정지원국으로 열거되어 있다. 가디언지가 말하듯 전문은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충돌에서 자주 간과되는 사실을 드러내어 보여주는데 그것은 폭력사태에 부분적으로 아라비아 해(海) 너머의 부유하고, 보수적인 지원자에 의한 자금 지원이 있다는 것이다. 주로 파키스탄이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을 돕는 것으로 비난받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그 주요 재정지원 원천인 사업들을 바탕으로 볼 때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미국의 견실한 동맹인 쿠웨이트는 알카에다를 위한 ‘재정원천이고 그 핵심 통과경로’이다.[11]

뉴욕타임즈는 위키리크스를 (사우디 왕이 미국에게 ‘뱀의 머리를 잘라 버릴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이란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제안하는 것으로 포장하기에 골몰한 채 어떻게 사우디의 후원자들이 알-카에다와 같은 수니파 무장 세력의 주요 자금줄로 남아있는지에 대해서는 단지 짧막하게 언급하고 지나갔다.[12] 이제 이것들이 다수에게는 정말로 하나의 ‘폭로’이겠지만 우리는 이 사실들을 잘 짜 맞추어 보아야 한다. 이것은 단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국들에 테러리즘과 알카에다 지원의 책임이 있다고 떠넘길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그들은 단지 그들이 해오던 일을 연기할 뿐이고, ‘외교’는 언제나 그렇듯 이 논란에서 슬며시 빠져나가 어둠 속에 감춰진다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광범위한 역사적 분석을 위해서는 이런 사실들의 맥락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소련-아프간 전쟁에서 발흥한 알카에다의 역사를 들여다보는 것, 그 시작은 미국과 다른 서구 동맹들의 은밀한 원조에 의한 것이라는 것, 이 작전의 핵심은 ‘사파리 클럽’이라 불리는 서구 정보기관(이탈테면 프랑스, 영국, 미국 정보기관)과 지역 정보기관(사우디아라비아와 파키스탄 정보기관 등)의 비밀 네트워크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것, 그리고 무자헤딘, 나중에 탈레반과 알카에다로 변모할 세력에 대한 재정, 훈련, 무장, 작전적 지원이 이루어졌다는 것 말이다. ‘사파리 클럽’은 1976년에 설립되었으며(당시 CIA 국장과 사우디 왕족의 가까운 친구인 조지 H.W 부시의 지원 하에), ‘교회 위원회’의 CIA 기구들에 대한 조사 이후 미국 정보 기구에 대한 정치적 감독이 증가하는 상황에 부응하려는 시도였다. 이렇게 감시를 피해 정보기관끼리 좀 더 은밀하며 비밀스러운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사파리 클



럽이다. 외교관들은 그 기구에 대해 알거나 사실상 그 존재도 알지 못했으나 막후에서는 은밀하고 조용한 관계들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 네트워크는 어떤 형태로든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으며 나는 최근 이것을 알카에다의 제국적 해부라는 3부짜리 연작을 통해 문서화해 놓았다.

[참조 : 알카에다의 제국적 해부/CIA의 마약 사업 운영 테러리스트와 '위기의 아크'/제국, 에너지, 그리고 알카에다/영미 테러 네트워크/9.11과 미국의 비밀 테러 활동]

한 마디로, 외교관들이 사우디와 아랍의 알카에다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해 조용히 볼 맨 소리를 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으나 실제로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미제국의 조직과 기구가 이 과정을 지원하고 용이하게 하기 때문이다. 외교는 그 제국의 야망에 있어 더 노골적이며,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란과 파키스탄에 초점을 맞춘 현실을 반영한다. 하지만 정보국들은 훨씬 더 은밀한 방법으로 특정한 제국적 관계를 수립하고 유지한다. 이 정보는 다시 말하지만 '액면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며 더 넓은 맥락 안에 놓여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 정보는 '허위정보' 또는 '선전'이 아니라 사실의 부가적인 입증이자 정보인 것이다.

서구 정부들과 미디어는 이란이 이라크 문제에 참견하고 테러리즘을 지원하며, 국정을 불안정하게 한다는 이유로 공개적으로 이란을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이란이 이라크에 영향력 행사를 하려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어쨌든 그들은 이웃이다), 사우디아라비아야말로 이란보다 이라크 국정 불안에 대한 책임이 더 크다. 그리고 이 사실은 이라크 지도자들 입에서 나온 것들이다. 가디언지에 따르면 이라크 정부 관료들은 이란이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를 지금 막 걸음마

를 뎨 민주국가의 통합과 단결에 가장 큰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미국 대사가 이라크에 쓴 전문에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다. 이라크는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를 가장 까다로운 문제로 보고 있는데 그것은 리야드의 자금과 관련, 시아파가 이끌게 될 이라크는 불가피하게 이란의 지역적 영향력 속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뿌리 깊은 반시아파적 태도와 의혹 때문이다. 더해서, 이라크의 정보통들은 사우디의 목표가(그리고 정도는 각기 달라도 대부분의 다른 수니파 아랍국들의 목표 역시) 수니파의 영향력을 확장하는 것에 있으며, 시아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이라크 정부가 분열된 상태로 있는 것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간단히 말해서, 서구가 이란이 이라크에 대해서 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짓을 실제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하고 있는 것이다. 확실히 이란이 이라크 내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한 조치를 해온 것이 사실이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은 안정된 시아파 정부이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원하는 것은 약하고 분열된 정부이며, 바로 이것이 종파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다. 그 전문들에서 나온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라크 젊은이들이 그 어떤 정부라도 외국의 간섭을 거부하는 관점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외교 전문은 나라의 안정성을 해치려는 외부의 안건들에 반대하는 이라크 젊은이들 사이에서 정신 혁명이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13]

그렇다면 한 사우디의 고위 왕족인(사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정보국의 전 국장이었고 따라서 그는 테러리스트들과 사우디와의 관계를 조정하는 책임자이다) 투르키 알 파이잘 왕자가 외교적 폭로자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했던 것이 이상할 것이 없다. 영국과 미국에서 사우디 대사로도 있었던 투르키는 위키리크스 열광 현상은 사이버 보안 문제가 국제적인 우려로 떠올랐음을 말해준다고 말했다.[14]

위키리크스를 이용하여 그 밖에 또 어느 지역의 정보를 읽어내어 비판적 미디어를 ‘변호’할 수 있을까? 글썄, 사우디아라비아 남 의 이웃인 예멘부터 시작해보자. 미국이 예멘에서 전쟁을 수행 중이라는 사실을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알든 모르든(이 경우라면 대부분의 사람 들이)간에 그 곳에서 바다를 건 먼 미국은 소말리아에 대해 또 다른 전쟁을 수행 중이다(2006년부터). 지난 10월, 나는 테러와의 전쟁이 라는, 그리고 알카에다와 싸운다는 미명 하에 예멘에서 제국의 전쟁 에 대한 글을 하나 썼는데 실제로 쓴 것은 미국과 다른 서구 제국주의 열강들(영국과 같은)에 대한 것이었고, 그 국가들은 북 의 반역 움직임과 남부의 대규모 분리독립파의 제거를 도움으로써 1978년부터 집 권하고 있는 독재 지도자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사우디아 라비아는 2009년 10월에 사우디 북쪽 국경지대에 반역적인 저항세력 을 폭격함으로써 갈등 국면으로 들어섰는데 사우디 엘리트들은 사우 디아라비아 내부에 불만 세력들의 움직임이 확산되지 않을까 두려워 하고 있었다.

미국은 예멘에 자금과 군사원조의 양을 늘림으로써 전쟁에 끼어들 었다(실제로는 그들의 군대를 매수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사우디 아라비아,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 다른 모든 아랍국들, 그리고 전 세계의 많은 다른 나라들에서 그렇게 해 왔다). 또한 직접적인 특별 부대 훈련과 도움을 제공했는데 그 외중에 미국 정보국이 60명의 ‘군 인들’을 살해했다고 주장하는 예멘 내 ‘알카에다 훈련캠프’ 미사일 공격은 언급되지 않았다. 실제로는 52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으며 그 중 절반 이상은 여성들과 어린이들이었다. 그때 예멘과 미국 모두 그것이 알카에다 훈련 캠프였으며 순항 미사일이 예멘 정부에 의해 발사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 미 해군 연안 수비대와는 달리 예멘

무기고에는 그런 무기가 없었다. 미사일 공격은 대통령 직속 명령 라인을 따라, 미국에 의해 이루어졌다.

며칠 후에 이상한 ‘테러리스트의 공격 시도’가 있었는데 그 자신의 속옷을 폭파시키려 한 젊은 나이지리아인이 체포되었다(그는 비행기에서 한 정체를 알 수 없는 인도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았는데 목격자들에 의하면 그가 외교관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결국 ‘아라비아 반도의 알카에다’와 연관 지어졌다(한 관타나모의 수용자가 사우디의 보호감독을 ‘피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로 돌아갔다가 예멘으로 도망쳐 새로운 알카에다 지부를 설립하기 직전에 시작된 조직). 이렇게 해서 미국의 예멘에 대한 군사원조의 극적인 증가가 정당화되었다. 6천7백만 달러에서 1억5천만 달러로 두 배 이상 지원이 확대되었고 특별군 훈련과 원조가 추가되었다. CIA 활동 역시 증가되었는데 논란이 되고 있는 무고한 사람들에 대한 무인 비행기 공격과 살해(파키스탄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더 많은 미사일 공격이 있었다.

지난 9월, 예멘 정부는 남부의 한 마을을 포위 공격했는데, 그때는 오바마 행정부의 최고 대테러관료인 존 브레넌이 예멘에서 살레 대통령의 ‘대화’를 위해 와있던 중이었다. 그 마을은 알카에다의 성역이라고 주장되었지만 거기에는 사실 핵심적인 전략적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 마을이 바로 새로운 주요 액화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의 남쪽에 위치했고, 우연히 남부 분리독립주의자들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다. 예멘 정부는 그 포위 공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외부와 차단했고, 그렇게 수일을 끌었다. 하지만 그 충돌과 포위 공격에서 빠져 나온 사람들은 주장하기를 이슬람 군인들이 북쪽의 반역 운동과 남부의 분리독립 운동에 대해 정부와 함께 협력해서 일하고 있었다고 한다. 또 한 NPR 리포터에 따르면 이것은 알카에다라기

보다 분리독립 운동과 싸우고 진압하려는 것이다.

[참조 : 앤드류 가빈 마샬, 예멘, 미제국의 은밀한 조직/글로벌 리서치, 2010년 10월 5일]

위키리크스의 ‘폭로’는 더 많은 정보와 많은 분석을 확인시켜 준다. 오바마의 명령에 따라 무고한 여성과 어린이들을 살해한 미사일 공격에 대해서 위키리크스 전문은 예멘 대통령 살레가 자국 영토 내에서 미군이 알카에다 테러리스트 목표에 대한 일방적인 공격을 지휘할 수 있는 무제한의 접근권을 은밀히 부여했다고 밝힌다. 살레가 존 브레넌에게 2009년 9월에 말했던 것처럼, ‘나는 당신들에게 테러리즘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그러니까 나는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12월 21일 무고한 시민이 살해되었던 공격에 대해서도 전문은 이렇게 설명한다. ‘예멘은 미국의 개입을 공식적으로는 계속 부인하겠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병이 완전히 뿌리 뽑힐 때까지 작전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기를 바랐다.’ 그리고 며칠 후 열린 미 중앙 사령관인 데이비드 패트레이어스 장군과의 회의에서 ‘살레는 국민들에게 그 공격들에 대해 거짓말하는 것을 용인했다.’ 또 그는 장군에게, ‘우리는 폭탄들이 당신들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이라고 계속 말하겠소.’라고 했다.[15]

파키스탄과 탈레반에 대한 전문 내에 존재하는 ‘여러 개의 관점들’의 유효성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파키스탄이 ‘테러와의 전쟁’에서 현재, 그리고 더욱 중요한 목표가 되어가고 있으므로 염두에 두어야 할 것들이 있다. : 역사적으로, 파키스탄 ISI가 탈레반에 자금을 대고 무장시키고 훈련시켰으며, 거기엔 항상 미국의 원조와 도움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상황을 현재적 관점과 역사적인 관점에서 모두 판단해야 한다. (내가 이미 언

급했던 것처럼) 위키리크스는 아랍 걸프국들이 모두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에 자금지원을 했다고 폭로했으므로, 탈레반의 자금지원처로 파키스탄만을 지목했던 일반적인 주장은 즉시 오류로 드러났다. 파키스탄이 아직도 탈레반과 손잡고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 물론이다. 그들은 역사적으로 그들의 정보기관인 ISI를 통해 일해 왔으며 미국의 지원(대부분은 CIA)없이는 일을 성사시키지 못했을 때조차도 ISI는 대부분의 자금을 CIA에서 받았다.[16] CIA의 ISI에 대한 자금지원은 70년대부터 실재했고, 9.11 이후로 급격히 증가했다. 그런데 9.11 테러의 자금마련에는 ISI도 직접적으로 공모했으므로, CIA는 결과적으로 9.11 사건의 배후 자금처에게 오히려 재정지원을 늘려 보상을 해 준 셈이 되었다.[17]

당신이 이미 알고 있던 생각과 맞지 않는 정보들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생각이 진화하거나 진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라도 그러지 말아야 하겠지만 사실은 대부분 그러고 있으며, 관료들이나 비판 언론들이나 마찬가지이다. 파키스탄에 대해서라면, 그것이 모든 정부를 지지하고 또 모든 쿠데타를 원조하는 미국의 충실한 동맹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미국의 지정학적 야망이 세계의 지정학적 현실의 변화에 따라 변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중국과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다. 중국은 파키스탄 연안에 중요한 항구를 건설했고 파키스탄은 중국에 인도양으로의 접근권을 제공했다. 이것은 인도에 전략적 위협이며 중국의 커지는 영향력을 붙잡아두고 통제하려는 미국에게는 훨씬 큰 문제이다(미국은 동시에 중국과의 국제적 관계에 참여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인도와 파키스탄은 역사적으로 적이었고 이전엔 둘 사이에 전쟁들이 있었다. 인도와 미국은 전략적 동맹인데, 미국은 인도의 핵 프로그램을 도왔

다. 이것은 파키스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한 셈이고, 현재 파키스탄은 중국과 가까워지고 있다. 파키스탄은 엄청난 전략상 중요성을 가진 지역을 점유하고 있다. 그 이웃은 아프가니스탄, 중국, 인도와 이란이다.

미국 정책은 미국에 도움이 되고 유약한 시민 정부를 지지하는 것으로 바뀌어 왔다. 동시에 미국은 은밀히 파키스탄 내부에 전쟁들을 확대하려고 한다. 이렇게 해서 정국의 불안정과 분열이 조장되고 있는데 어쩌면 완전한 내전 상황을 초래할지도 모른다. 미국은 1990년대에 유고슬라비아를 분열시키는 데 사용했던 것과 유사한 정책을 파키스탄 내에 적용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파키스탄이 다른 것은 1억 7천만이라는 인구와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것뿐이다. 미국이 파키스탄의 정국불안을 확대시킨다면 파키스탄과 인도 사이의 핵전쟁 위험은 엄청나게 커질 것이고 정국불안은 그 이웃들인 인도, 중국, 아프가니스탄과 이란에까지 퍼져나갈 것이다. 미국이 주장하는 파키스탄 권력-군사의 분리는(사실 현재 군사 독재는 아니다), 결국 미국에 종속적인 시민 정부를 내세워 현저히 힘이 꺾이고 무력화된 파키스탄 군의 고립을 획책하는 것이다.

위키리크스 전문가들이 드러내었듯, 파키스탄군의 수장인 카야니 장군은 2009년 3월의 쿠데타 상황에 파키스탄 정부를 협박해서 물러나게 했고 파키스탄의 미국대사인 앤 패터슨과의 만남에서 이것들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파키스탄군 수장이 시민 정부를 싫어한다는 것을 드러냈지만 시민들은 그 상대를 훨씬 더 싫어했으며 결국 사람들은 길거리로 뛰쳐나왔다.[18] 이렇게 파키스탄군과 맺고 있는 미국의 비밀스런 속성이 - 항상 그래왔지만 - 드러나게 되었다. 미국은 유약한

시민정부를 원하고 있었으므로 이 제안을 지지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강한 군사 독재는 미국의(또는 인도의) 이익에 맞지 않았다. 그래서 쿠데타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듯 위키리크스는 파키스탄에 대한 더 많은 정보와 분석에 대한 확인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 파키스탄의 국정 불안에 대해 수년간 말해온 사람들에게,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위키리크스는 비평적 분석을 위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갑자기 전 세계의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새로운 생각들과 관점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다. 바로 위키리크스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많은 기존 신념들에 도전한 것이다.

위키리크스 전문들에 드러난 사례들의 목록은 그 양에 있어서 대안 미디어의 정보 보급과 분석을 위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양의 정보들을 더해준다. 이것은 사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실수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기회가 진실의 보급을 위한 것이지, 그것 때문에 혼란스러워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보들을 적절하게 취급해야 할 것이다.

## 참고

- [ 1 ] Ewen MacAskill, Columbia students told job prospects harmed if they access WikiLeaks cables, The Guardian, 5 December 2010: <http://www.guardian.co.uk/media/2010/dec/05/columbia-students-wikileaks-cables>
- [ 2 ] RICHARD STENGEL, Transcript: TIME Interview with WikiLeaks' Julian Assange, Time Magazine, 30 November 2010: [http://news.yahoo.com/s/time/20101201/wl\\_time/08599203404000](http://news.yahoo.com/s/time/20101201/wl_time/08599203404000)



- [ 3 ] Ibid.
- [ 4 ] Ibid.
- [ 5 ] Matthew Creamer, Obama Wins! ... Ad Age's Marketer of the Year, AdAge, 17 October 2008: [http://adage.com/moy2008/article?article\\_id=131810](http://adage.com/moy2008/article?article_id=131810); Mark Sweney, Barack Obama campaign claims two top prizes at Cannes Lion ad awards, The Guardian, 29 June 2009: <http://www.guardian.co.uk/media/2009/jun/29/barack-obama-cannes-lions>
- [ 6 ] David Leigh, Heather Brooke and Rob Evans, WikiLeaks cables: 'Rude' Prince Andrew shocks US ambassador, The Guardian, 29 November 2010: <http://www.guardian.co.uk/uk/2010/nov/29/wikileaks-cables-rude-prince-andrew>
- [ 7 ] US embassy cables: Prince Andrew rails against France, the SFO and the Guardian, The Guardian, 29 November 2010: <http://www.guardian.co.uk/world/us-embassy-cables-documents/175722>
- [ 8 ] Rob Evans and David Leigh, WikiLeaks cables: Prince Andrew demanded special BAE briefing, The Guardian, 30 November 2010: <http://www.guardian.co.uk/uk/2010/nov/30/prince-andrew-wikileaks-cables>
- [ 9 ] US embassy cables: Prince Andrew hunts with Arab leaders, The Guardian, 29 November 2010: <http://www.guardian.co.uk/world/us-embassy-cables-documents/8446>
- [10] Robert Booth, Wikileaks cable: Prince Charles 'not respected like Queen', The Guardian, 29 November 2010: <http://www.guardian.co.uk/uk/2010/nov/29/wikileaks-cable-prince-charles-queen>
- [11] Declan Walsh, WikiLeaks cables portray Saudi Arabia as a cash machine for terrorists, The Guardian, 5 December 2010: <http://www.guardian.co.uk/world/2010/dec/05/wikileaks-cables-saudi-terrorist-funding>

- [12] SCOTT SHANE and ANDREW W. LEHREN, Leaked Cables Offer Raw Look at U.S. Diplomacy, The New York Times, 28 November 2010: <http://www.nytimes.com/2010/11/29/world/29cables.html>
- [13] Simon Tisdall, WikiLeaks cables: Saudi Arabia rated a bigger threat to Iraqi stability than Iran, The Guardian, 5 December 2010: <http://www.guardian.co.uk/world/2010/dec/05/wikileaks-cables-saudi-meddling-iraq>
- [14] William Maclean, Saudi royal: Punish WikiLeaks source “vigorously”, Reuters, 5 December 2010: <http://www.reuters.com/article/idUSTRE6B41VA20101205>
- [15] Robert Booth and Ian Black, WikiLeaks cables: Yemen offered US ‘open door’ to attack al-Qaida on its soil, The Guardian, 3 December 2010: <http://www.guardian.co.uk/world/2010/dec/03/wikileaks-yemen-us-attack-al-qaida>
- [16] Greg Miller, CIA pays for support in Pakistan, Los Angeles Times, 15 November 2009: <http://articles.latimes.com/2009/nov/15/world/fg-cia-pakistan15>
- [17] Andrew Gavin Marshall, 9/11 and America’s Secret Terror Campaign, Global Research, 10 September 2010: <http://www.globalresearch.ca/index.php?context=va&aid=20975>
- [18] David Batty and Declan Walsh, Pakistan army reacts to WikiLeaks cables with democracy pledge, The Guardian, 4 December 2010: <http://www.guardian.co.uk/world/2010/dec/04/pakistan-army-supports-government-wikileaks> (끝) 

\* 편집부 주: 본 기사의 내용들, 특히 정치적 문제에 대해 미내사는 완전히 중립적이며, 세계를 보는 다양한 여러 관점들 중 하나로서 제시된 이 글에 대한 판단은 독자들의 몫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글은 'Wikileaks and the Worldwide Information War'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앤드류 가빈 마셜(Andrew Gavin Marshall) | 캐나다 출생, 세계화연구소(Centre for Research on Globalization) 연구원으로 미셸 초수도브스키(Michel Chossudovsky)와 함께 최근 발간된 <세계경제위기 : 21세기 대공황>을 공동 편집했다. 글로벌 리서치 출판사에서 2011년 출간에 정인 '세계 정부(Global government)'를 집필 중이다.